**[재경조찬] 2020.9.7 월요일**

**FOCUS ON**

1. **팡싱하이(方星海)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 현재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70조위안으로 국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장회사 수는 4,000개에 육박. 올해 중국 증시는 8,000억위안대의 일평균 거래액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음. 지난 1월~8월, 후선강퉁(**沪深港通**)을 통해 1,265억위안의 북상자금은 순유입. 지속적인 대외개방으로 중국 시장의 가치투자 이념이 보다 확고해지고 투자 행위가 보다 이성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가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강세장이 짧고 약세장이 오래 지속되는 펄스식 시장이 사라지고 있으며 보다 이성적인 시장이 조성되고 있음.**
2. **유엔 세계식량계획 :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20세기 30년대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7,000만명~1억명이 극빈 상태에 접어들 전망. 현재 세계식량계획은 1억명이 넘는 빈곤인구의 식량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 조율 중.**
3. **거시경제**
4.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비상금 대출 및 비상금 융자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금융 시스템을 통해 여러 유형의 기업에게 1.조위안의 이익을 양도할 예정. 또한, 부실자산 처리를 강화하여 3.4조위안의 은행 부실채권을 처리할 예정. ‘주택은 투기 자산이 아닌 거주용 자산’이라는 포지션을 철저히 유지하고 부동산 대출 사업을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금융화를 방지해야 함. 최신 자산관리 규정의 요구를 확실하게 실행하여 그림자 금융의 재확산을 방지하고 불법 금융 활동을 단속함으로써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함.**
5. **하이퉁(海通證券) 쟝차오(姜超) : 미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 중단을 선언하지는 아니하였고 지난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양적완화가 확대되지는 아니하였음.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경제가 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된 통화 부양책 또한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조기에 중단될 전망.**
6. **루이인(瑞銀)자산관리사 인레이(殷雷) : 중국정부채권 수익율 양호. 올해 선진국의 채권 수익율이 0 심지어 마이너스로 하락한 것과는 달리 중국정부채권의 수익율이 2%~3%에 도달했으며 위약율 또한 지극히 낮아 국제자금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음.**
7. **중국신문망(中新網) : 지난 9월 6일, 신파디(新發地) 농산물도매시장 영업 전면 재개. 영업 전면 재개일 당일 2,118대의 차량과 2.9만톤의 과일•야채 입장. 공급량은 직전일(2.3만톤)에 비해 6,000톤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되기 전 공급량의 80% 수준으로 회복. 중추절•국경절 도래 전에 폐쇄 전 공급량 회복 전망.**
8. **증시**
9. **상장회사협회 : A주 시장에 상장한 3,975개사가 공개한 상반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총 매출액은 23.4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했고 총 순이익은 1.8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지난 상반기, 과학현신보드(科創板) 상장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8% 및 42.3% 증가. 지난 9월 2일 기준, 234개사가 IPO를 통해 3,087억위안을 조달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했고 지난 10년간 최고치 기록.**
10. **팡싱하이(方星海)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 지난 9월 3일 기준, 해외투자자가 후선강퉁(**沪深港通**)을 통해 보유 중인 중국 증시 주식의 시가총액은 2.01조위안으로 A주 시장 유통주 시가총액의 3.28%에 도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해외투자자 보유 주식 비중이 아직은 아주 낮은 편이기에 대외개방을 통해 해외 자금을 중국 증시로 유치함에 있어 상당한 잠재력 보유.**
11. **산업 관찰**
12. **증권시보(證券時報) : 현단계 3세대 반도체 재료 시장은 미국•일본•유럽 기업들이 리드하는 구도. 중국은 3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14.5’계획에 포함시켜 2021년~2025년 5년동안 교육, 과학연구, 개발, 융자, 응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3세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할 계획.**
13. **신화통신 : 중국 최초의 산업인터넷추진위원회 성립. 해당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산업 인터넷의 발전을 위한 상부설계(頂層設計) 및 생태 구축을 가속화 추진하고 다분야 협력, 개방•공유, 안전•통제가능한 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산업 인터넷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14. **페루(Peru) :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페루의 지주적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관관업 관련 실업자 60만명에 육박. 페루의 관광업은 완만한 회복기를 거쳐 2026년 쯤에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15. **산업 데이터**
16. **중국의약품•건강기능식품수출입상회 :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이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의약 진흥 및 세계화의 중대한 변곡점 맞이. 지난 상반기 중국의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18% 증가한 21.44억위안을 기록했고 한약재•한약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6.18억위안 기록.**
17. **니광난(倪光南) 중국공정원 원사 :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도달했고 그 규모는 30조위안 상회. 향후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부문은 뉴 인프라 부문으로 그 규모가 수십조위안에 도달할 전망. 뉴 인프라는 정보 기초시설, 융합 기초시설, 혁신 기초시설 세가지 방면 포함.**
18. **세계골드협회 : 지난 7월 기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출량이 17.7톤에 도달하면서 2019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 7월에 국제 금값이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금ETF와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금 매입. 지난 7월 기준, 글로벌 금ETF는 8개월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고 전 세계 보유량은 3,785톤에 도달.**
19. **중국중앙방송 재경 채널 : AP통신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각 주의 학교들이 향후 수개월간 노트북 PC 등 원격수업 장비 부족에 시달릴 전망. 글로벌 3대 노트북 제조사인 레노버•HP•DELL은 약 500만대의 노트북 제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미국 각 주 의 학구에 통보. 코로나19 사태 외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노트북 PC, CPU, 터치스크린의 미국 반입을 제한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
20. **MySteel : 지난주 금요일, Myspic 종합지수가 144.73으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1.17% 상승. 비록 선물 시장이 조정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류부문의 성수기 도래로 수요가 호전되고 있고 건축용 철강재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물 가격을 강력하게 지탱해주고 있음. 단기적으로 국내 건축용 철강재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조정국면을 이어갈 전망.**
21. **자본 동향**
22. **지난주 금요일, 위안화 역내거래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0.0556% 하락한 6.8393에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3758% 상승. 위안화 중간가격은 0.0585% 하락한 6.8359에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7722% 상승.**
23. **국제 뉴스**
24. **지난주 금요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6% 하락한 28133.31로 거래를 마쳤고, 주간으로는 1.82% 하락.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1% 하락한 3426.96으로 장을 끝냈고, 주간으로는 2.31% 하락. 나스닥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7% 하락한 11313.13으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3.27% 하락.**
25. **지난주 금요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1.65% 하락한 12842.66으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1.46% 하락.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0.88% 하락한 5799.08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2.76% 하락.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1.07% 하락한 4960.11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99% 하락.**
26. **지난주 금요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이 0.2% 하락한 온스당 1,934.3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2.1% 하락.**
27. **지난주 금요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북해산브렌트유가 3.87% 하락한 배럴당 39.77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7.45% 하락.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20% 하락한 배럴당 42.66달러로 거래 마감.**